



MBC PD수첩 ‘현응 스님 성추행의혹’은 거짓이었다

중앙지검, 성추행 주장 여성 기소...“여성 주장 내용 모두 거짓”

현응 스님 부인에도 방송 강행...“명예훼손이자 인격살인 행위”

PD수첩·성평등불교연대 등 일부단체 법적책임 불가피할 듯

검찰이 MBC PD수첩에 출연해 조계종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응 스님에 대한 MBC PD수첩의 보도가 명백한 허위였음이 사실상 입증됐다. 따라서 사실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PD수첩은 물론 각종 성명 등을 통해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고 진상규명도 없이 일방적인 퇴진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성평등불교연대 등 교계 일부단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018년 3월 ‘미투위드유(metoowithyou.net)’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5월1일 방영된 PD수첩에 출연해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응 스님이 해당 여성

의 거짓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지 2년여만의 결정이다.

검찰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처럼) 현응 스님이 “백운동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나를 만나면 몇 천 만원을 만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마트, 롯데마트, 모텔 등에 가거나 모텔에서 손을 잡거나 만지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은 현응 스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해당 여성은 2018년 3월16일 밤 11시33분경 성남 분당구 소재 한 PC방에서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글을 올려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7시경 백운동 경치가 좋아 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차를 타고 곧장 대구로 향했으며, 운전 중에 나를 만나면 몇 천 만원의 돈

도 만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내에 들어서서 이마트 반야월점에서 옷을 갈아입고, 롯데마트에서 양주를 마신 뒤 모텔로 가서 다시 양주 한 병을 마셨고, 침대에 누워 성추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이 게재되자 현응 스님은 즉각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그러자 해당사이트 운영자는 그해 3월31일 “본 게시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타인에 대한 음해성 글일 수 있다”며 “글쓴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 처리 된다”고 공지했다. 이후 해당사이트 운영자는 4월초 재차 글쓴이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뒤 4월9일 해당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했다.

그럼에도 PD수첩은 5월1일 해당 여성을 방송에 출연시켜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방송에 앞서 현응 스님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의혹제기자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의지해 당사자 확인도 없이 방송한다면 명예훼손이자 인격살인”이라며 “방송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최소한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밝혔지만 PD수첩은 끝내 외면했다.

2면에서 계속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위례천막결사 그 혹독한 정진의순간

하는 사진을 보내왔다. 덤수룩한 머리와 수염은 서릿발 같은 청구대로 존음을 아껴가며 수행에 일로매진했음을 보여준다. [☞ 관련기사 3면](#)

위례 상월선원이 본지에 위례천막결사 기간 중 대중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사진을 보내왔다. 덤수룩한 머리와 수염은 서릿발 같은 청구대로 존음을 아껴가며 수행에 일로매진했음을 보여준다. [☞ 관련기사 3면](#)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코로나 피해’ 중국에 구호기금 1억원 전달

조계종, 2월10일 주한중국대사에

원행 스님, “피해 극복 발원”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상하이잉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호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중국 피해지역 내 구호물품 지원 및 감염예방 조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도한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되고 조계종이 전달한 기금이 필요한 물자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상하이잉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한국불교계와 조계종이 지원은 물론 사태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중국과 중국불교계를 향해 지속적으로 보내주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조계종 “비불교 파승가적 행위, 엄단하겠다”

고운사·법주사 관련 담화문 발표

“파승가적·도박, 있을 수 없는 일”

“재발 않도록 신속히 조사할 것”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스님의 폭력 및 성추문 의혹과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요소임자들의 도박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종단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승가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2월11일 담화문에서 “일부 교구본사에서 발생한 갈등과 혼란, 그리고 사찰 경내에서 벌어진 도박의혹 사건이 공중파를 통해 보도돼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과거 비불교적·반사회적 행위의 아픈 상처가 채 아

물기도 전에 또 다시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도박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무척 무겁다”고 토로했다. 스님은 이어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파승가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밤을 새워가며 도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출가수행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면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드린다. 교구본사에서 파승가적·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스님은 이어 자정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스님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비록 종단의 이러한 조치가 사부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할 지라도 종단의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

일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또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도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격려와 가르침이 있었다”며 “이에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에는 아직도 희망과 저력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그 믿음을 위해 사부대중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조계종은 사부대중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종단안정과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담화문

국내외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종단의 일부 교구본사에서 발생한 갈등과 혼란, 그리고 사찰 경내에서 벌어진 도박의혹 사건이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사회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은 질책과 비난을 받았던 과거 승가의 비불교적, 반사회적 행위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마땅히 마음조자 내지 말아야 할 도박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더욱이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 공간이자, 국민들에게 휴식처이며, 전통문화의 보고임을 자부해 온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파승가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탐욕으로 밤을 새워가며 도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출가수행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립니다.

출가수행자가 한시라도 놓지 말아야 할 계일의 화두는 화합일진대 조계종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구본사에서 파승가적·반사회적 행위가 발생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종단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할 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종단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며, 종단의 진정성있는 조치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입니다.

승가공동체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승려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한국불교의 전통인 승가공동체를 통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께서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종단은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종단 안정과 화합 그리고 승가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종단혼란을 조장하고 종단 집행부를 흔들고자 하는 꾀된 시도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러한 반 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헛된 망상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승가의 잘못과 허물을 꾸짖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종단이 정한 규율인 종헌종범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허물을 여과 없이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한국불교에는 아직도 희망과 저력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그 믿음을 위해 사부대중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호도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